

고려본 『大顚和尚注心經』과 저자 문제

Goryeo Edition *Dadian he shang zhu xin jing* and Author Problem

김 방 울 (Kim, Bang-Wool)*

◁ 목 차 ▷

- | | |
|-----------------------------------|-------------------------|
| 1. 문제 제기 | 3.2 1360년 고려 간본 |
| 2. 『반야심경』의 번역과 주석 | 4. 저자 문제 |
| 2.1 『반야심경』의 성립과 漢譯 | 4.1 기존 견해와 본문 내용 사이의 역설 |
| 2.2 『반야심경』에 대한 주석 | 4.2 기존 자료의 검토 |
| 3. 1411년 조선 간본과 그 원류인 1360년 고려 간본 | 4.3 소결 |
| 3.1 1411년 조선 간본 | 5. 결 론 |
| | <참고문헌> |

<초 록>

본 논문은 조선본 『대전화상주심경』의 원류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의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고려본 『대전화상주심경』을 찾아내었다.

첫째, 미국의회도서관 목록에 중국본으로 소개되어 있었던 이 자료는 그 특징을 통해 이 판본이 1360년 고려에서 간행된 고려본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이 고려본이 원본의 복각본인가에 대해서는 원에서 제작된 판본이 고려에 들어와 있다가 1360년에 간행된 것으로 보았다.

셋째, 이 책의 저자인 대전화상 요통이 누구인가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위작이라는 설, 당나라 대전보통이라는 설, 남송 대전통이라는 설의 세 가지 견해로 정리해 보았다.

要語: 반야심경, 대전화상주심경, 대전보통, 위소, 공민왕, 고려본, 복각본

<ABSTRACT>

This paper aims at revealing the origin of Joseon Edition *Dadian he shang zhu xin jing* (大顚和尚注心經). For this purpose, I found Goryeo Edition *Dadian he shang zhu xin jing* housed in Library of Congress. Comparing with each other, I lightened the difference between two editions and explained the characteristics of Goryeo Edition. Throughout this process, I could become to know a few facts newly.

First, Library of Congress introduces this book a Chinese Edition. But this book is Goryeo Edition published in 1360.

Second, the original edition of this book was Chinese Yuan(元) Edition. This edition was imported by Goryeo and republished in 1360.

Third, who is the author of this book, *Dadian heshang* (大顚和尚) We cannot determine yet. I summarized three opinions that is a counterfeit, *Dadianbotong* (大顚寶通) of Tang (唐) and *Dadiantong* (大顚通) of South Song (南宋).

Key words: Prajnaparamita-hrdaya-sutra, the Heart Sutra, *Dadian he shang zhu xin jing*, *Dadian he shang*, Goryeo Edition, Replica Edition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철학연구소 전문위원(goldenbell50@hanmail.net)

투고일: 2019년 2월 20일 최초심사일: 2019년 3월 1일 게재확정일: 2019년 3월 17일
서지학연구, 제77집, 231-249, 2019. [https://doi.org/10.17258/jib.2019..77.231]

1. 문제 제기

『대전화상주심경』은 『반야심경』에 대한 주석서 중 하나이다. 『반야심경』은 자타가 공인하는 동아시아 불교의 핵심 경전이다. 이에 대한 주석서는 전근대시기에 찬술된 것만 해도 100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조사된다. 『대전화상주심경』은 그중에서 독특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교학적 차원에서 풀이한 것이 아니고, 부처의 말씀과 선사들의 화두로 『반야심경』의 구절들을 풀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以禪解經’이라고나 할까.

그동안 『대전화상주심경』에 대한 논의는 1411년 고창 문수사에서 간행된 판본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조선에서 최초로 간행된 것이고 이후 여러 차례 다시 간행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이 판본은 한국과 일본의 여러 기관과 사찰에 소장되어 있다. 그러나 1411년본은 간기 부분이 명확하여 간행시기와 장소만 명확할 뿐 이 책의 저자인 대전화상의 실체, 그리고 판식의 특성상 복각이라고 추정할 뿐 이전 판본의 존재 등에 대해서는 모호한 상태였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여러 해제나 향토문화대전 등에 서로 모순되는 설명들이 일반에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모순과 문제점을 인식하고 여러 자료를 추적하다가 1411년 이전에 간행된 판본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우선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서설 격으로 『반야심경』이 언제 어떻게 漢譯되었는지, 그리고 그 대표적 주석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래야 『대전화상주심경』이 『반야심경』주해의 역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짐작할 수 있겠기 때문이다.

2. 『반야심경』의 번역과 주석

2.1 『반야심경』의 성립과 漢譯

반야부 경전의 성립 시기는 대체적으로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후 1세기까지이다. 대승불교가 흥기하는 시기와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대승경전 중에 반야부 경전이 가장 먼저 성립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이 번역한 『대반야바라밀다경』은 모두 600권에 이른다. 이 중 『금강반야경』, 『문수반야』처럼 정수만 뽑든지 아니면 한 가지 주제만을 골라 성립된 『小部반야경』도 있다. 특히 『반야심경』은 정수 중에 다시 골수만 뽑아놓은 경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반야심경』은 반야부 경전 중에서도 비교적 후대에 성립된 것이다. 반야부 경전은 육바라밀 가운데 마지막인 ‘반야바라밀’을 중점적으로 다룬 경전이다. 반야바라밀은 ‘쁘라즈나파라미타(Prajñāpāramita)’를 음사한 말로 ‘지혜의 완성’이라는 뜻이다. 반야바라밀의 핵심 교설내용은 無所得・無住處・空 사상으로 집약된다.

우선 『반야심경』의 산스크리트 원본과 한문 번역본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산스크리트 원본

에는 대본과 소본이 있다.¹⁾ 대본은 서분, 정중분, 유통분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이고, 소본은 이 중 정중분만을 추출한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일반적으로 암송되는 현장 역본 『반야심경』은 바로 이 소본을 번역한 것이다.

대본 『반야심경』의 내용을 개관해보면, 여기에는 세존, 훌륭한 이 아발로키테스바라, 長老 사리푸트라, 이 세 사람이 등장한다. 아발로키테스바라는 관세음, 관자재로 번역된다. 사리푸트라라는 부처님 10대 제자 중 지혜제일로 꼽히는 수석 상좌인데, 아쉽게도 부처님보다 먼저 죽었다. 『반야심경』에서는 사리자로 번역된다. 아발로키테스바라가 설법의 주체, 사리푸트라라는 청법의 주체, 세존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마지막에 설법의 내용을 증명하는 주체로 등장한다. 먼저 세존이 명상에 들고, 아발로키테스바라는 그 속에서 반야바라밀다를 실천한다. 오온이 모두 공함을 깨달은 것이다. 사리푸트라라는 어떤 훌륭한 남자나 여인이 깊고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실천하고자 할 때 어떻게 수행하면 좋겠냐고 묻는다. 이에 아발로키테스바라가 사리푸트라에게 설법을 한다. 이 설법의 내용이 소본 『반야심경』에 해당한다. 아발로키테스바라가 설법을 마치자 세존은 명상에서 깨어나 아발로키테스바라에게 찬사를 표한다. 그대의 말이 옳고 옳으니 반야바라밀을 실천할 때 그대가 말한 대로 지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한다. 그러자 그 자리에 참석했던 세간의 모든 존재들이 기뻐한다.

이에 대한 한문 번역본에는 7종이 있다. 이들은 500년 이상에 걸쳐 7차례나 번역되고 있는데, 이는 단일경전으로는 드문 일이다.²⁾ 그만큼 반야사상을 압축하고 있는 『반야심경』이 동아시아 불교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반야사상은 대승불교의 기초로서 이후 전개되는 유식, 천태, 화엄, 선, 정토 등에 생명수를 공급한다. 그 핵심에는 지혜와 자비의 구현체로서 관음보살이 존재한다. 이들 번역을 알기 쉽게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반야심경 번역본

번호	번역자	번역 년도	번역 경명	원본	설법 보살 명칭
1	구마라집	402~412년	摩訶般若波羅蜜大明呪經	소본	觀世音
2	현장	649년	般若波羅蜜多心經	소본	觀自在
3	법월	738년	普遍智藏般若波羅蜜多心經	대본	觀世音, 觀自在
4	반야, 이언	790년	般若波羅蜜多心經	대본	觀自在
5	지혜륜	847~859년	般若波羅蜜多心經	대본	觀世音自在
6	법성	858년 경	般若波羅蜜多心經	대본	觀自在
7	시호	980년 이후	佛說聖佛母般若波羅蜜多經	대본	觀自在

1) 학답, 『현수법장으로 읽는 반야심경』 (서울: 큰수레, 2013), 271~300.

2) 학답(2013), 301.

구마라집이 5세기 초 『마하반야바라밀대명주경』이라는 이름으로 번역한 이래로 모두 7차례에 걸쳐 번역되고 있다. 구마라집 역본과 현장 역본은 소본에 해당하고, 이후 역본들은 모두 대본『반야심경』을 번역한 것이다. 그중 범성이 번역한 『반야바라밀다심경』은 돈황 석실본으로서 가장 원본에 충실한 번역으로 평가받고 있다.³⁾ 설법 주체인 관음보살에 대한 명칭은 구마라집이 관세음, 현장이 관자재로 번역했다. 이후 대체로 관자재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으나, 범월은 관세음과 관자재를 같이 사용하고 있고 지혜륜은 관세음자재라는 중복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2.2 『반야심경』에 대한 주석

『반야심경』에 관한 주석서는 모두 현장 번역본에 기초하고 있다. 사실 현장 번역은 거의 구마라집의 번역 체제를 따르고 있다. ‘五陰’을 ‘五蘊’으로 바꾸는 등 일부 번역용어를 정비하고, 원본에 없는 일부 문장을 삭제한 것을 제외하면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현장의 번역은 상당부분 구마라집에 빚지고 있는 것이다. 현장도 훌륭한 번역가이지만, 구마라집 역시 동아시아 불교에서 위대한 존재이다. 현장이 수많은 경전을 번역했으나, 그의 번역본 중 널리 독송되는 경전은 아마 『반야심경』이 유일할 것이다.

주석서로 중국에서는 당나라 窺基의 『반야바라밀다심경幽贊』, 法藏의 『반야바라밀다심경略疏』, 慧淨의 『반야바라밀다심경疏』 등 77부가 저술되었다. 중국의 주요 주석서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당 慧淨 『반야바라밀다심경소』 1권
- ② 당 靖邁 『반야바라밀다심경소』 1권
- ③ 당 窺基 『반야바라밀다심경幽贊』 2권
- ④ 당 法藏 『반야바라밀다심경略疏』 1권
- ⑤ 중천축 提婆 『반야바라밀다심경주』 1권
- ⑥ 明曠 『반야바라밀다심경소』 1권
- ⑦ 당 慧忠 『반야바라밀다심경주』 1권
- ⑧ 명 宗泐 『반야바라밀다심경주해』
- ⑨ 당 慧忠, 송 道楷, 송 懷心 『반야심경三注』
- ⑩ 명 弘贊 『반야심경添足』
- ⑪ 송 道降 『반야심경주』
- ⑫ 명 大慧 『반야심경際決』

3) 학담(2013), 328-329.

4) 이기영 역해, 『반야심경』 (서울: 한국불교문화연구원, 1979) 참조.

이 중 ④번 범장소는 敎興, 藏攝, 宗趣, 釋題 등 四門으로 나누어 주석한 것이다. 이 『약소』에 다시 주석을 단 주소본이 있는데, 仲希가 지은 『顯正記』 3권, 師會가 지은 『連珠記』 2권, 普寂이 지은 『探要抄』 2권 등이 그것이다. 중화와 사회 주소본은 조선시대에 다수 간행되었던 판본이다. ⑦번 혜충 주소본은 선가의 입장에서 주석한 것으로 대한제국기에 간행되었다.

신라시대에도 『반야심경』에 대한 주석이 몇 차례 신라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원효가 『반야심경소』 1권을 저술했다고 기록에는 남아 있으나 아쉽게도 실전되었다. 근래 최범술이 이에 대한 복원⁵⁾을 시도했다. 원측은 『반야바라밀다심경贊』 1권과 『반야심경소』 1권을 저술했다. 전자는 현재 남아있고, 후자는 전해지지 않는다. 경덕왕대(742~764)의 대덕인 太賢은 『반야심경古迹記』 1권과 『반야심경주』 2권을 저술했다고 되어 있는데, 모두 남아있지 않아 아쉬움을 남긴다.

여러 연구서나 참고서에 『반야심경』에 대한 주요 주석서로 본 논문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대전화상주심경』이 소개되어 있지는 않다. 그 이유가 이 책의 서술 체제에 있지 않나 추측해 본다. 저자가 자기의 생각을 밝히면서 여러 근거 자료들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반야심경』의 각 어구에 여러 경전과 선사들의 어록에서 관련 부분을 발췌하여 나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또한 상당한 내공이 필요한 작업이나, 아무래도 후대 연구자들은 저자의 생각과 의도가 직접 드러난 저술에 우선 주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주목한 것이 아닌가 한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그 사정이 다르다.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1411년 처음 간행된 이후 세 차례나 더 간행되어 총 4회 이상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반야심경』주석서로는 제일 많이 간행된 것이다.

3. 1411년 조선 간본과 그 원류인 1360년 고려 간본

3.1 1411년 조선 간본

『반야심경』이 어떻게 유통되었을가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 주석서들을 찾다가 조선에서 제일 먼저 간행된 판본이 1411년 고창 문수사본임을 알게 되었다. 제목은 『대전화상주심경』. 권수 제목이 ‘大顚和尚注心經’으로 되어 있고, 저자 표시에 ‘大顚禪師了通述’이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표지 제목은 여러 가지로 되어 있어, 목록에서는 『심경해』·『대전해』등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 책은 태종 11년(1411) 전라도 고창 문수사에서 목판으로 간행되었다. 이 판본이 지금까지 전해져 가장 일찍 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 간행 경위를 뒤에 발문으로 남기고 있는데, 이를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5) 최범술, “원효대사반야심경복원소(元曉大師般若心經復元疏),” 『동방학지』 제12집(1971. 3), 281-306.

행원품, 금강경 천로해, 반야심경 대전해를 空禪이 다시 간행한다. 인정에 얽매이지 않고 인출하여 유통시키니, 번개가 치고 바람이 불 듯 외우고 설하고 쓰고 지녀서, 모든 나라가 저절로 맑아지고 삼계의 은혜로운 생명들이 나고 죽음이 없어지고, 온 세계가 평화롭고 원숭이 노래하고 새들 지저귀길 바란다. 영락 신표년 한여름 고창현 문수사에 보관하다.⁶⁾

『행원품』은 물론 『화엄경』 『보현행원품』이고, 『금강경 천로해』는 야보도천 선사가 주해한 『금강경』이다. 그리고 대전선사가 주해한 『반야심경』, 이 셋을 ‘공선’이라는 스님이 다시 간행한다는 얘기도. 다시 간행한다는 얘기는 이 책들을 어디선가 먼저 간행했었다는 뜻인데,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어 아쉽다. 현재 남아있는 『대전화상주심경』을 보면 송나라나 원나라 판본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 간행된 판본을 구해 1411년 복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었다.

3.2 1360년 고려 간본

1411년 간본은 중국 송원본의 특징을 갖고 있어서 일찍이 여러 학자들이 복각본일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 이전 판본의 출현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필자가 학위논문을 준비하면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여러 사이트를 검색하다가 호주국립도서관 사이트를 통해 미국의회도서관에 1360년 간행된 판본이 소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목록 상으로는 1360년 중국본으로 소개되어 있었다. 하지만 목록만으로는 그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다. 그러다가 후배의 도움으로 미국의회도서관에 연락을 취하여 도판 자료를 구할 수 있었다.⁷⁾ 이를 검토해보니 일단 1411년 간본과는 쌍둥이 판식이어서 서로 복각 관계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몇 가지 부분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이 1360년 간본을 1411년 간본과 비교하며 살펴보기로 한다.

3.2.1 표지와 표제

우선 범어사가 소장하고 있는 1411년본에는 ‘心經解’라는 제목이 묵서되어 있다. 능화판 표지에 오침안으로 장책되어 있다. 1360년본은 ‘太顓和尚注心經’이라는 표제가 제첨에 쓰여 있다. 표지는 능화판이며 역시 오침안으로 선장되어 있다. 그런데 표지와 제첨 종이 색깔이 너무 달라서 제첨은 후대에 붙인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표제 아래에 작은 글씨로 ‘老果’라는 명호를 써넣었다. 이것은 추사 김정희가 말년에 과천에 머물 때 사용하던 호이다. 제목의 서체도 추사체 비슷해

6) “行願品 金剛般若川老解 般若心經大顓解 空禪重刊 亦勿人情 印成流通 電轉風行 誦說書持 六國自清 四恩三有 無滅無生 四海不波 猿啼鳥鳴 永樂辛卯朱夏藏高敞縣文殊寺.”

7) 서지학회에서 토론을 맡아주고, 미국의회도서관에 친히 연락을 취하여 도판 자료를 구해준 국립고궁박물관 학예사 이상백에게 감사드린다. 참고로 이 책의 영문명은 『Dadian he shang zhu xin jing』이다.

보인다. 하지만 추사가 남긴 여러 필적들과 비교해 보면 이것은 누군가가 어설픔게 추사를 흉내 낸 글씨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⁸⁾ 그렇지만 이를 통해 이 제첩의 제작 시기와 장소를 추론할 수 있었다. 서체나 종이 재질로 봤을 때 추사 이후가 되어야 하니 빨라야 19세기 후반 조선에서 누군가가 새롭게 제첩을 작성하여 책 표지에 붙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책은 19세기 후반 이후 조선에서 미국으로 건너갔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1411년본(범어사 소장본)



1360년본(미국의회도서관 소장본)

<그림 1> 표지와 표제

3.2.2 서문과 권수제

이 부분의 판식과 서체는 일치한다. 예서체로 판각된 ‘摩訶般若波羅密多心經解序’와 저자 표시인 ‘大顛和尚了通述’이 나온다. 다음으로 서문이 나오고 ‘大顛和尚注心經’이라는 권수제와 함께 본문이 이어진다. 이를 통해 1411년본은 1360년본을 복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1411년본에는 없는 중요한 정보가 1360년본 서문 말미에 드러나 있는 것이다. 이 책을 보면 서문과 본문의 서체가 다르다. 서문은 예서로 되어 있고, 본문은 해서로 쓰여 있다. 서문 말미에 있는 ‘善男子危素書 比丘紹明刻施’라는 표현은 1360년

8) 이 부분에 대해 참고 의견을 준 동학 성인근 박사에게 감사드린다.

본에만 있는 것으로, 이 예서 서문을 위소가 쓰고, 소명이 새겼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 서문을 쓴 위소는 누구인가. 위소는 1295년에 태어나 1372년에 죽은 인물로 원나라 말기와 명나라 초기에 걸쳐 산 사람이다. 『明史』에 『危素傳』이 수록되어 있을 정도로 고위관직을 지냈을 뿐만 아니라 학문과 서법에도 뛰어났다고 한다. 그리고 『청장관전서』 제69권 『寒竹堂涉筆下』 ‘羅麗石刻’에는 “임천 보광사에는 원명국사비가 있는데 원나라 개해사의 글씨에 위소의 글로 된 것이다.”라는 기록이 있다. 즉 보광사 원명국사비⁹⁾는 위소가 문장을 짓고 개해사가 글씨를 썼다는 것이다. 비문의 내용을 보면 원명국사 충감의 제자로서 당시 선원사 주지이던 宏演이 원나라에 건너가서 당시 문장가로 이름이 높던 위소에게 부탁하여 받은 문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이 비석은 부여박물관 경내로 옮겨져 있고 보물 제107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외에도 위소 관련 기록을 찾아보면 그가 고려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이색이 지은 ‘寶蓋山地藏寺重修記’에 따르면 익재 이제현의 제자 중에 慈惠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지장사를 중수할 때 원나라에 들어가 황실과 공경대부들에게 모금해서 공사를 완성시켰다. 그런 다음 위소에게 부탁하여 그 전말에 대한 글을 받고 비석을 세웠다는 것이다.¹⁰⁾

그리고 ‘書證道歌後’라는 글이 있는데, 이것은 고려에서 『증도가』를 목판으로 간행할 때 이색이 지은 발문이다. 이에 따르면 林觀寺 주지 玉田達蘊이 증도가 글씨를 원에서 가지고 온 지 20년이 되었다. 전임 贊成事 禹公禪가 널리 전할 목적으로 목판에 새겨 간행하려 하자, 옥전이 이색에게 글을 지어 달라고 부탁했는데, 원본 글씨는 조맹부가 썼고, 발문은 위소가 썼다는 것이다.¹¹⁾

또한 이색의 ‘西天提納薄陀尊者浮屠銘并序’는 인도 출신 지공화상에 대한 비명으로 양주 회암사에 그 비석이 세워져 있다. 이에 따르면 스님이 西天에서 『文殊師利無生戒經』 두 권을 가지고 왔는데, 參政 危太朴¹²⁾이 서문을 썼다는 것이다.¹³⁾

『용재총화』에는 “普賢院 언덕 위에 반쯤 부러진 비가 있었는데 문장이 豪健하고 자체가 굳세게 보였다. 원나라의 위소가 지었으며 虞集이 쓴 것이다. 참으로 당대에 뛰어난 기이한 보배였으나, 사람들이 애호하고 아끼지 않아서 지금은 깨어져서 남은 것이 없다.”¹⁴⁾는 기록이 있다. 또한 『연려실

9) 부여군 임천면에 있던 普光寺의 중창을 기념하여 1358년에 건립한 비석이다. 중창을 주도한 圓明國師 冲鑑(1275~1339)의 행적과 중창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 충감은 禪源寺 출신으로 중국의 강남지방에 유학한 후 간화선의 대가로 이름이 높던 蒙山 德異의 제자 鐵山 紹瓊과 함께 귀국하여 간화선풍을 널리 퍼뜨렸고, 선종 승려들의 생활규범을 정리한 『禪門清規』의 보급에도 힘썼다. 1336년에 그가 개경을 떠나 보광사로 은퇴하자 지방관과 충감의 가족들이 물자를 시주하여 보광사를 크게 중창하였고, 이후 이곳에는 그의 문도들이 주석하게 되었다. 이 비문은 충감의 제자로서 당시 선원사 주지이던 宏演이 원나라에 건너가서 당시 문장가로 이름이 높던 危素에게 부탁하여 지은 것이다. 본래의 비문은 역시 원나라 사람인 楊池와 周伯琦가 각각 본문과 전액을 쓴 것이었는데, 조선시대에 임진왜란을 거치며 크게 마멸되어 글씨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영조 26년(1750)에 당시 주지이던 能一이 글씨를 다시 새겨 건립하였다 (한국금석문종합영상시스템 참조).

10) 『동문선』 제72권 記, 「목은문고」 제2권 記.

11) 「목은문고」 제13권 書後.

12) ‘태박’은 위소의 자이다.

13) 「목은문고」 제14권 碑銘.

기술』에는 원명국사 충감의 제자인 “宏演에게 『竹礪集』이라는 문집 1권이 있는데 구양현과 위소 두 학사가 서문을 지었다.”¹⁵⁾는 기록도 있다.

이런 기록들을 통해 보면 위소는 당시 고려에 잘 알려진 인물이었으며, 고려 선승들과도 밀접한 교류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불경이나 스님 문집의 서문과 발문을 쓰거나 비문을 짓고 있다. 이런 교류 맥락에서 위소가 서문의 글씨를 쓴 『대전화상주심경』 역시 고려로 수입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1411년본(범어사 소장본)



1360년본(미국의회도서관 소장본)

<그림 2> 서문과 권수제

14) 『용재총화』 제4권, 『연려실기술』 별집 제14권 文藝典故 筆法.

15) 『연려실기술』 별집 제14권 文藝典故 文集.

3.2.3 발문과 간기

이 부분에서 두 판본은 큰 차이를 보인다. 우선 1360년본은 ‘大顚和尚注心經’이라는 권미제가 대자로 새겨진 후 발문과 간기가 나온다. 이를 판독해 보면 “伏爲聖上陛下 統臨四海 億載萬年 公主殿下壽齊年 王后殿下壽無疆 干戈息靜國民安 天下太平法輪轉 刊此舊本 廣施無窮者 至正二十年庚子五月日 剋手禪師戒元”이다. “성상폐하께서 사해를 통치하심이 억년 만년 이어지고, 공주전하의 수제년과 왕후전하의 수무강, 전쟁이 종식되어 국민이 편안하고, 천하가 태평하여 법륜이 굴러가기를 바라며 이 舊本을 간행하여 널리 베푼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정 20년(1360) 경자년 5월 일에 선사 戒元이 관각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와 달리 1411년본에는 1360년본의 발문과 간기 대신 ‘大顚和尚注心經’이라는 권미제를 삭제하고 새로운 발문과 시주자 명단을 넣고 있다. 발문은 위에서 제시했으니 시주자 명단만 보면 “同願施主等 周元奉 豆彥夫妻 方氏 朴氏 曹元吉 宋氏 高乙寶 金孟德 張白 金氏 功德主 庚元剛 全氏 同願比丘 信寶 志良 信志 化主 信空”과 같다. 이에는 일반인 시주자, 공덕주, 같이 발원한 스님, 화주 등이 명시되어 있다.

1360년본에서 몇 가지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우선 ‘聖上陛下’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어서 ‘公主殿下’가 나오고, 그 다음으로 ‘王后殿下’가 나오고 있다. 일반적 의미로는 왕 다음에 왕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공주가 나올 거 같은데 공주가 먼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 삼자는 누구이고, 어떤 관계인가.

간기에 나오는 지정 20년은 1360년이다. 당시 고려 왕은 공민왕이다. 그는 1351년부터 1374년까지 왕위에 있었다. 왕위에 오르기 전인 1349년 원나라 황족의 딸인 노국대장공주를 부인으로 맞았다. 여기서 ‘공주’라는 호칭은 원나라 황족 출신으로서 고려에 시집온 왕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발문에 나오는 공주는 공민왕의 부인인 노국대장공주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왕 다음 두 번째로 나온 것이다. 그렇다면 공주 다음에 나오는 왕후는 누구인가. 공민왕의 어머니인 공원왕후(恭元王后)를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왜냐하면 그녀는 1380년까지 생존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재 패턴은 1358년 고려에서 제작된 비슬산 소재사 향로에서도 볼 수 있다. 이 향로는 은으로 상감된 청동 향로로서 현재 영국 국립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아쉽게도 몸체 부분은 유실되고 좌대부분만 남아 있는데, 그 맨 아랫단에 명문이 상감되어 있다. 명문은 다음과 같다. “至正十八年 戊戌六月日 毗瑟山 追災社 地藏前香 主上殿下萬歲 公主殿下壽千秋 王后殿下壽無疆 天下太平 大功德主 妙海 化主 達海.” 이를 해석하면 “지정 18년(1358) 무술년 6월 일, 비슬산 소재사 지장보살 앞에 향을 피운다. 주상전하의 만세, 공주전하의 수천추, 왕후전하의 수무강 및 천하가 태평하기를 바란다. 대공덕주는 묘해, 화주는 달해이다.” 정도가 될 것이다. 여기에도 주상전하, 공주전하, 왕후전하 순으로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당시 왕을 지칭하는 용어인데, 1360년본에서는 ‘聖上陛下’라 칭하고 있고 1358년 향로에서는 ‘主上殿下’라 칭하고 있다. 전자는 물론 황제를 지칭하는 표현이다. 원나라 간섭기에 고려왕을

황제로 칭할 수 있었을까. 이는 공민왕대의 지주적 개혁정치와 관련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고려 전기에는 ‘外王內帝’ 시스템에 따라 고려를 황제의 나라로 칭했었다. 그러다가 거란과 몽골의 침입과 간섭으로 중단되었는데, 공민왕대에 이르러 다시 부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부분은 본 판본의 출처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이 책이 고려본이나, 원본이나를 가릴 수 있는 중요한 힌트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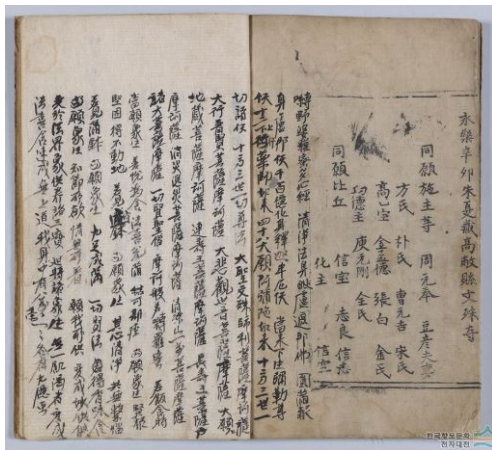
다음으로 ‘刊此舊本’이라는 표현이다. ‘이 구본을 간행한다’는 것은 1360년 이전에 간행되었거나 필사된 판본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이 구본은 아마 원나라에서 만들어진 판본이었을 것이다. 이 판본이 고려에 들어와 있다가 1360년 이를 간행하면서 발문과 간기를 새로 추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려에서 『증도가』를 목판으로 간행했던 사례와 비슷하다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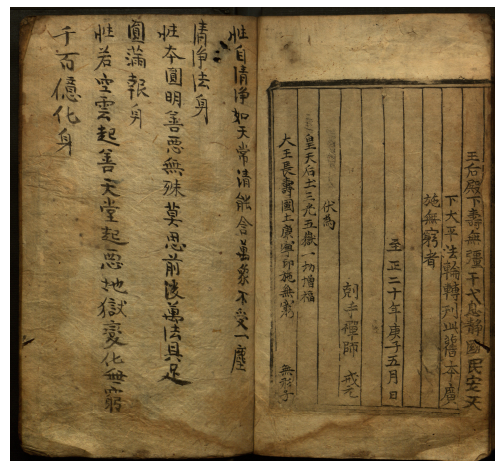
1411년본(원각사 소장본)



1360년본(미국의회도서관 소장본)



1411년본(범어사 소장본)



1360년본(미국의회도서관 소장본)

<그림 3> 발문과 간기

4. 저자 문제

4.1 기존 견해와 본문 내용 사이의 역설

그렇다면 이 책을 주해한 대전화상 了通은 누구인가. 일반적으로 그는 당나라 때 유명한 선사인 大顚寶通(732~824)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의 법호는 보통, 스스로 대전화상이라 칭했다. 처음에 藥山惟儼과 함께 惠照에게 사사받고 다시 남악회양과 석두회천에게 참알하고 조계의 종지를 깨달았다. 潮州에 靈山禪院을 창건하고 거기에 머무르며 가르침을 폈다. 한유가 조주에 유배 왔을 때 대전화상의 명성을 듣고 교유했다. 『반야바라밀다심경』과 『금강경』에 대한 釋義를 지었다. 일찍이 『금강경』1500편, 『법화경』과 『유마경』 각각 30부를 서사했다고 한다.”¹⁶⁾ 이러한 내용이 그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다. 『반야심경』과 『금강경』을 연구하여 주석서를 짓고, 『법화경』과 『유마경』을 서사한 것을 보면的空에 대한 이해와 함께 一乘의 가르침에 대한 신앙도 깊었던 모양이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수긍하고 넘어가기엔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 ‘대전’이라는 호는 같은데, 이름은 ‘了通’과 ‘寶通’으로 다르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이 책에 송나라 때 게송들이 인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전화상이 당나라 때 인물이라면 그의 사후 살았던 선사들의 게송이 인용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런 역설적 상황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먼저 大顚禪師 了通이 쓴 『대전화상주심경』의 서문을 보자. “대저 心經은 미처 들어 말하기 전에 이미 분명하거늘, 어찌 주석을 달고 풀이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데 세존께서 세상에 나셔서 여러 종류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여러 종류의 법을 설하셨다. 다섯 시기로 교화를 펴시고 다섯 종류로 제목을 세우셨다. 현묘한 문을 널리 열어 못 중생들을 이끄시고 구제하셨다. 다섯 번째 시기에 이 반야의 최고로 뛰어난 큰 경전을 설하셨다. 당나라 현장삼장(596~664)이 황제의 명을 받고 번역을 완성한 후, 이 땅(중국)에 유통되었는데 모두 600권에 이르렀다.空을 담론함은 한결같지만, 법을 드러냄은 여러 방법이 있다. 그 가르침 중 가장 간결하면서도 핵심적인 것은 54구, 267자인데 그 문장이 너무 끝아서 도리어 깨치기가 어려웠다. 了通은 어리석고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좁은 소견으로 부처와 조사의 말씀과 가르침을 인용하여 주해를 하였다. 어찌 모든 진리를 통달한 이들에게 전하려 함이겠는가. 다만 근기가 낮은 사람들을 접견하여 인도하고자 바랄 뿐이다. 만약 자기를 마주하고 돌이켜 비추며 보고 들은 것을 궁구할 수 있다면 먼저 見性を 성취하고 다음으로 圓頓에 들 것이다. 결단코 막힘이 없이 끝내 궁극의 경지에 이를 것이다. 설령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하였더라도 다시 마지막 구절을 들어볼지어다.”¹⁷⁾

16) 慈怡 편저, 『불광대사전』 2 (북경도서관출판사, 2004), 906.

17) “夫心經者 未曾舉起 已是分明 何須注解 然而世尊出世 應現種種相 譚說種種法 五時施化 五種立題 廣闡玄門 誘濟群品 於第五時 說此般若 最勝大經 有唐玄奘三藏 奉詔譯成 流於此土 盡六百卷 談空一味 顯法多門 於其數中 最簡要者 五十四句 計二百六十七字 其文大直 反成難曉 了通不揆蒙陋 聊以管窺 輒引佛祖言教 以爲注解

이 서문처럼 요통은 부처와 조사의 말씀과 가르침을 인용하여 『반야심경』을 풀이하고 있다. 부처의 말씀으로는 『금강경』, 『법화경』, 『법사공덕품』, 『비유품』, 『대반열반경』, 『대반야경』, 『열반경』, 『능엄경』, 『菩薩處胎經』, 『화엄경』, 『유마경』 등을 인용하고 있고, 조사의 말씀으로는 승조(383~414), 달마(?~536), 혜가, 승찬, 육조혜능(638~713), 영가현각, 석두희천(700~790), 백장회해(720~814), 약산유엄(751~834), 협산선회(805~881), 동산양개(809~869), 설봉(822~908), 포대화상(?~916), 운문(864~949), 경청도부(867~937), 풍혈연소(896~973), 설두중현(980~1051), 단하자순(?~1119), 불안청원(1065~1120), 보봉유조(1084~1128) 등의 일화와 계승이 인용되고 있다. 심지어 『노자』, 『장자』, 『논어』까지 인용하고 있다.¹⁸⁾ 이를 정리해보면, 대전화상은 대승경전과 『노자』, 『장자』, 『논어』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유불도에 능통한 사람이라는 점, 선사들의 일화와 계승을 주로 인용하고 있다는 점, 단하자순(?~1119)의 계승과 불안청원(1065~1120)의 계승, 그리고 보봉유조(1084~1128)의 계승을 하한연대로 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4.2 기존 자료의 검토

그렇다면 이 책의 저자를 어떻게 보아야 하겠는가. 우선 이에 대한 몇 가지 자료들을 검토해 보자.

첫째, 1977년 대만 新文豐出版公司에서 전 151권으로 간행한 『卍續藏經』 41, 42권에는 『반야심경』에 대한 주석서가 48종 수록되어 있다. 42권에 9번째로 『般若心經註解』 1권이 실려 있는데 저자를 ‘淸 대전祖師註解’라고 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없고, 단지 저자 표시만 되어 있는 것이다. 오류가 아니라면 대전조사를 청대 인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내용을 비교해보니 『대전화상주심경』 전체가 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 그러나 실려 있는 내용은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두 책의 저자는 동일인임을 알 수 있다. 대전조사가 청대인이라는 것은 별도의 설명이나 근거가 없는 한 취하기 어려운 견해이다.

둘째, 1968년 일본 대동출판사에서 출판된 전 12권 『불전해설대사전』 제9권에는 『반야심경』에 대한 한중일 역대 주석서들이 소개되고 있다. 제9권 70쪽 소재 『반야심경註解』 조를 보면, ‘당 대전보통(732~824) 述’이라고 하면서 석두희천 선사의 제자인 대전보통 선사의 심경주해라고 소개하고 있다. 즉 이 사전에서는 의심 없이 『대전화상주심경』의 저자인 ‘대전요통’을 당나라 때 선사 ‘대전보통’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셋째, 고려 대각국사 의천(1055~1101)이 1090년에 찬술한 『新編諸宗教藏總錄』에는 『반야심경』에 대한 주석서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 목록은 의천이 자신의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20년의 세월을

豈欲傳諸達道 庶幾接引初機 若能對己反照 窮究見聞 先取見性 次第入頓 決無凝滯 終到牢關 設或未然 且聽末後句。”

18) 현봉 율김, 『禪에서 본 반야심경 - 대전화상주심경』 (순천: 송광사, 2002) 참조.

전심전력으로 章疏의 수집에 보냈다고 할 만큼, 의천이 심혈을 기울인 일생일대의 사업이었다. 그는 이 목록의 작성을 위해 송나라에 들어가 여러 종파의 敎藏 3천여 권을 구득하였고, 심지어 요와 일본까지 서신을 보내 장소류를 입수하였다. 그만큼 당시 동아시아에 유통되고 있던 웬만한 주석서들은 다 모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대전화상주심경』은 없다. 참고로 『신편제종교장총록』에 수록되어 있는 『반야심경』주석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幽贊 二卷: 窺基 述
- ② 集解 四卷, 科 一卷: 智朗 述
- ③ 疏 一卷: 元曉 述
- ④ 疏 一卷: 圓測 述
- ⑤ 疏 一卷: 法藏 述
- ⑥ 顯宗記 二卷: 澄惑 述
- ⑦ 義鈔 一卷: 淨澄 述, 澄或 作, 隆令安 刪定
- ⑧ 科 一卷: 志延 述
- ⑨ 義光鈔 二卷: 惠涉 述
- ⑩ 略鈔 一卷, 科 一卷: 道歡 述
- ⑪ 顯正記 一卷, 科 一卷: 仲希 述
- ⑫ 古迹記 一卷: 太賢 述
- ⑬ 疏 一卷: 智誦 述
- ⑭ 注 一卷: 正覺 述
- ⑮ 疏 一卷, 詒謀鈔 一卷: 智圓 述
- ⑯ 疏 一卷, 環中鈔 二卷, 科 一卷: 靈鑑 述
- ⑰ 注 一卷: 智昭 述

저자로는 모두 17명이나 종수로는 23종이다. 여기에 신라시대 저술 ③번 원효의 疏와 ④번 원측의 疏, 그리고 ⑫번 태현의 古迹記가 들어있다. 그리고 조선시대 간경도감에서 간행했던 ⑤번 법장 疏와 이에 대한 주석인 ⑪번 중희의 顯正記가 들어있어 참고가 된다. 물론 여기에 당시의 모든 교장이 빠짐없이 수록되어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천이 심혈을 기울여 당시 동아시아 전역을 뒤져 구한 만큼 여기에 『대전화상주심경』이 빠져 있다는 건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다.

『대전화상주심경』이 중국에서 이미 간행되어 유통되고 있었거나 한반도에 들어와 있었다면 의천이 이를 구득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대전화상주심경』에 실려 있는 계송의 하한연대에 해당하는 인물들이 단하자순(?~1119), 불안청원(1065~1120), 보봉유조(1084~1128) 등인데, 의천과 거의 동시대 인물들이다. 이 사실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의천이 교장을 수집할 당시에 『대전화상주심경』은 아직 제작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대전화상주심경』의

하한연대와 의천의 활동시기를 같이 고려하면 12세기 이후에 『대전화상주심경』이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는 현존 『대전화상주심경』에 나타나는 판식의 특징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4.3 소결

대전화상은 어느 시대 누구인가. 이에 대해 확답을 내리기는 지금 상황으로선 어렵다. 우선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먼저 연구한 한중일 선학들의 의견을 들어보자. 시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먼저 의견을 피력했다. 『대전화상주심경』은 1912년 일본에서 완성된 『만속장경』에 수록되었다. 여기에 수록된 『대전조사주해』는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대전화상주심경』의 일부이다. 이것이 중국에 소개되면서 진위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다.

1930년 王弘愿(1876~1937)은 『靈山正宏集跋』에서 『반야바라밀다심경석의』가 대전의 저술임을 부정하고, 偽作이라고 단정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었다. 6조 혜능이 언어문자를 타파했는데, 대전은 6조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인물이다. 따라서 저술을 남겼을 가능성이 적다. 그리고 夾山の 어록이 수록되어 있는데, 협산은 대전으로부터 40년 후 사람이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러면서 文意가 지리한 것으로 보아 어설픈 사람이 후대에 위작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대해 溫廷敬(1868~1953)은 『校記』에서 위작임을 부정하고, 원 대덕 5년(1301) 영산사 주지 了性화상이 대전보통의 전기인 『大顛本傳』을 편찬할 때 이 『대전화상주심경』도 같이 편찬하여 전하였을 거라고 주장했다. 요성 또한 이를 자신이 창작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것에 근거해 편찬했을 것이라 추정했다. 6조시대부터 노장의 설을 끌어다가 불교를 해석해 왔기 때문에 이 책에 노장이 인용된 것은 하등 이상한 일이 아니며, 대전 당시에 이미 선사들이 저술을 남기고 있고, 심지어 대전의 스승인 석두 역시 『草庵歌』와 『參同契』를 지었기 때문에 대전이 저술을 남긴 것 역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이다. 饒鏐(1891~1932)도 왕홍원의 설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혹시 대전보다 후대 인물의 어록이 수록되어 있다면 후인의 수정 가필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¹⁹⁾

일본의 椎名宏雄은 그의 논문²⁰⁾에서 『대전화상주심경』의 판본과 사상적 경향, 그리고 찬자의 정체를 밝히고 있다. 『만속장경』에 실린 텍스트에서 1411년본으로, 거기서 다시 1360년본으로 옮겨가면서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1411년본은 일본 大東急記念文庫와 蓬左文庫에 소장되어 있어 이것을 실사한 것이고, 1360년본은 王重民이 미국의회도서관 소장 중국본을 실사하고 난 후 1957년 그 결과를 간행한 『미국의회도서관장중국선본지록』에 수록된 목록을 참고하고 있다. 이 내용은 왕중민이 1984년 펴낸 『中國善本書提要』에도 실려 있다. 왕중민은 미국의회도서관 소장 『대전화상주심』

19) 林子雄, “大顛和尚著述と《正弘集》,” 『廣東佛教』 2015 No.6(166) (廣東: 廣東佛教編輯部, 2015), 21-24.

20) 椎名宏雄, “大顛和尚注心經とその作者,” 『宗教學論集』 13(駒澤大學宗教學研究會, 昭和62年(1987)). 이 논문을 찾아서 보내준 주일한국대사관 홍정원 박사에게 감사드린다.

경』을 원 지정 년간 각본으로, 저자인 대전선사 요통을 원대 인물로 기록하고 있다. 단순히 간기에 따라 그렇게 추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참고한 추명평옹도 이 판본을 의심 없이 원 간본으로 간주하고 논지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판본은 원본이 아니라 고려본이다.

저자인 대전요통에 대해서는 텍스트 내용 분석을 통해 시기적으로는 북송 말기에서 남송 초기, 사상적으로는 동산양개 문하 계통의 선사로 추정했다. 이에 해당하는 인물로 『보등록』 권9에 수록된 보봉유조의 제자 대전통 선사를 골랐다. 유조는 동산 문하 8세손인 芙蓉道楷의 제자이고 1084년부터 1128년까지 살았기 때문에 그 제자인 대전통은 남송 초기 사람에 해당한다. 대전요통과 시기적으로 일치하는 셈이다.²¹⁾

『대전화상주심경』을 우리말로 번역한 현봉 스님은 이 책에 소개되어 있는 계송의 하한연대를 근거로 저자를 남송대의 인물로 추정했다. 보봉유조(1084~1128)의 제자 8인 중 大顛通 선사를 그로 지목한 것이다. 그는 『嘉泰普燈錄』에 행적이나 機緣語句 없이 이름만 실려 있다.²²⁾ 이 견해는 위 추명평옹의 것과 비슷하다.

대전화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위에서 설명한 견해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대전화상주심경』은 후대의 위작이라는 설이다. 즉 이 책은 당나라 대전보통과는 상관없고 후대의 누군가가 그에게 가탁했다는 것이다. 둘째, 『대전화상주심경』의 저자가 당나라 대전보통이라는 설이다. 그가 충분히 이 책을 저술했을 수 있고, 다만 그보다 후대 선사들의 어록은 나중에 후인들에 의해 추가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남송 초 대전통 선사라는 설이다. 시기적으로나 사상적으로 봤을 때 대전화상은 남송 초 인물이어야 하니 『가태보등록』에 나와 있는 보봉유조의 제자 대전통이 적당하다는 설이다. 지금 상황에서 이 중 어느 설이 맞다고 확정짓기는 어렵다. 좀 더 확실한 자료의 출현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5. 결 론

1360년 고려본 『대전화상주심경』은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판본이다. 1411년 문수사본이 복각본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분명히 그 이전 판본이 존재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다 1360년 간본이 미국에 존재함을 알게 되었고, 이를 추적하게 되었다. 1360년 간본의 도판을 통해 몇 가지 새로운 사실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21) 椎名宏雄(1987), 335-337.

22) 『嘉泰普燈錄』, 『불광대장경』 禪藏 史傳部 13·14권 (佛光大藏經編修委員會, 1994). 13권 380쪽부터 386쪽까지 寶峰闡提惟照禪師의 제자 8인이 수록되어 있다. 5인의 제자에 대해서는 그 문답이 수록되어 있으나 나머지 3인에 대해서는 이름만 나와 있을 뿐 일화나 문답이 소개되어 있지 않다. 그 중 한 명이 嘉興府報恩大顛通禪師이다.

첫째, 이 판본이 중국본인가 아니면 고려본인가 하는 점이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미국의회도서관 목록에는 중국본으로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전적으로 믿을 것이 못된다. 한문으로 되어 있으면 중국책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이 갖고 있는 특징을 중심으로 판단해보면, 제침이 19세기 후반 이후 조선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 발문에 들어있는 성상폐하와 공주전하가 공민왕과 노국대장공주를 가리킬 개연성이 크다는 점, 그리고 본문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뒷 표지 안쪽에 필사된 글이 조선 말기 서체라는 점 등을 그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이 판본은 1360년 고려에서 간행된 고려본임을 알 수 있다.

둘째, 고려본이라면 이것은 원본의 복각본인가의 여부이다. 원본의 출현 여부에 따라 확실히 갈리겠지만, 발문에서 구분을 언급했다는 점, 위소가 서문의 글씨를 썼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에서 제작된 판본이 있었고, 이 판본이 고려에 들어와 있다가 1360년에 간행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판본이 필사본인지 목판본인지는 불명확하나, 서문을 위소가 쓰고 소명이 새겼다는 것으로 보아 목판본일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 생각해 본다.

셋째, 이 책의 저자인 대전화상 요통이 누구인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세 가지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 후대 누군가가 당나라 대전보통에 가탁했다는 설, 실제 당나라 대전보통이 저술한 책이 있었고 후대 누군가가 여기에 증보했다는 설, 송대 보봉유조의 제자 중 한 명인 대전통이라는 설이 그것이다. 현재로서는 누구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사족으로 덧붙일 것은 이 책이 원형 그대로가 아니라는 점이다. 얼핏 도판으로만 봐서는 잘 보존되어 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자세히 책 페이지들을 보면 광곽 안 부분과 바깥 부분이 서로 색깔과 지질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후대 누군가가 교묘하게 원본의 광곽 바깥선을 따라 잘라낸 다음 다른 바탕지에 붙여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고 원래대로 장책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러한 작업은 언제 이루어졌을까. 제침이 19세기 후반 이후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당시 새롭게 페이지를 개작하면서 제침도 다시 써 붙인 것이 아닌가, 그것도 추사를 흉내 내면서, 이렇게 판단해 본다.

<참고문헌>

구마라집 역. 『摩訶般若波羅蜜大明呪經』.

대전화상 주. 『大顚和尚注心經』.

반야·利言 역. 『般若波羅蜜多心經』.

法成 역. 『般若波羅蜜多心經』.

法月 역. 『普遍智藏般若波羅蜜多心經』.

서거정. 『동문선』.

성현. 『용재총화』.

施護 譯. 『佛說聖佛母般若波羅蜜多經』.

의천. 『新編諸宗教藏總錄』.

이공익. 『연려실기술』.

이덕무. 『靑莊館全書』.

이색. 『목은문고』.

智慧輪 譯. 『般若波羅蜜多心經』.

현장 譯. 『般若波羅蜜多心經』.

『嘉泰普燈錄』, 『불광대장경』 禪藏 史傳部 13·14권. 대만: 佛光大藏經編修委員會, 1994.

『卍續藏經』 41·42권. 대만: 新文豐出版公司, 1977.

『明史』.

『佛書解說大辭典』 제9권. 일본: 대동출판사, 1968.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찰문화재 전국사찰문화재일제조사 종합색인자료집』. 대전:

문화재청·서울: 불교문화재연구소, 2014.

이기영 역해. 『반야심경』. 서울: 한국불교문화연구원, 1979.

최범술. “원호대사반야심경복원소(元曉大師般若心經復元疏).” 『동방학지』 제12집(1971. 3). 281-306.

학단. 『현수법장으로 읽는 반야심경』. 서울: 큰수레, 2013.

현봉 옮김. 『禪에서 본 반야심경 - 대전화상주심경』. 순천: 송광사, 2002.

椎名宏雄. “大顚和尚注心經とその作者.” 『宗教學論集』 13. 駒澤大學宗教學研究會, 昭和62年.

林子雄. “大顚和尚著述与《正弘集》.” 『廣東佛教』 2015 No.6 (166). 廣東: 廣東佛教編輯部, 2015.

『디지털고창문화대전』 (gochang.grandculture.net/).

『미국의회도서관』 (www.loc.gov).

『부산역사문화대전』 (busan.grandculture.net/). 도판 자료 인용.

『원각사 정보박물관』 (www.wongaksa.or.kr/). 도판 자료 인용.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한국고전종합목록시스템』 (http://www.nl.go.kr/korcis).

『한국금석문 종합영상정보시스템』 (http://gsm.nricp.go.kr).

『호주국립도서관』 (http://trove.nla.gov.au).

• 국문참고자료의 영어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eobseong. *Panyaparamildasimgyoung*.
- Beobwoel. *Bopyeonjijangbanyaparamildasimgyoung*.
- Bulseohaeseoldaesajeon 9. 1968. Japan: Daedongchulpansa.
- Dadianheshang. *Dadianheshangzhuxinjing*.
- Euicheon. *Sinpyeonjaejonggyojangchongrok*.
- Gataebodeungrok. 1994. Taiwan: Bulgwangdaejanggyoungpyounsuiwonhoi.
- Hyunjang. *Panyaparamildasimgyoung*.
- Jihyeoryun. *Panyaparamildasimgyoung*.
- Kumarajiba. *Mahabanyaparamildaemyoungjugyoung*.
- Mansokjanggyoung 41-42. 1977. Taiwan: Sinmunpungchulpangongsa.
- Myoungsa.
- Panya and Lieon. *Panyaparamildasimgyoung*.
- Seo, Geo-Jeong. *Dongmunseon*.
- Seong, Hyoun. *Yongjaechonghwa*.
- Siho. *Bulseolseongbulmobanyaparamildagyoung*.
- Yi, Deok-Mu. *Cheongjanggwajeonseo*.
- Yi, Geung-Ik. *Yeonryeosilgisul*.
- Yi, Saek. *Mokeunmungo*.
- Choi, Beom-Sul. 1971. "Wonhyodaesabanyasimgyoungbokwonso." *Dongbanghakji*, 12: 281-306.
- Hakdam. 2013. *The Heart Sutra read by Hyunsubeobjang*. Seoul: Keunsure.
- Hyunbong. 2002. *The Heart Sutra approached by Zen - Dadianheshangzhuxinjing*. Suncheon: Songgwangsa.
- Yi, Gi-Young. 1979. *Panyasimgyoung*. Seoul: Hangukbulgyomunhwayounguwon.

